

제 1 교시

국어 영역

성명

수험 번호

- * 본문 중 { } 부분: EBS 미수록 부분
- * 한시 등 한자 원문은 생략, 고어 표기 지양
- * 한 지문이 같은 페이지에 없을 수도 (필기 공간을 위해)

<고대 가요 · 향가>

[01] 충담사, 「찬기파랑가」

<한시>

- [02] 이양연, 「반월」
- [03] 문충김, 「오관산」
- [04] 허난설헌, 「기녀반」
- [05] 김창협, 「착빙행」
- [06] 이광사, 「늙은 속의 탄식」
- [07] 정몽주, 「홍무 정사면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지음」
- [08] 이달, 「불일암 인운 스님에게」

<고려 가요>

- [09] 작자 미상, 「사모곡」
- [10] 작자 미상, 「서경별곡」

<경기체가>

[11] 작자 미상, 「오륜가」

<시조>

- [12] 김천택, 「백구야 놀라지 마라 ~」
- [13] 작자 미상, 「백초를 다 심어도 ~」
- [14] 작자 미상, 「개를 여남은이나 기르되 ~」
- [15] 이준오, 「구름이 무심탄 말이 ~」
- [16] 성훈, 「말 없는 청산이오 ~」
- [17] 작자 미상, 「대천 바다 한가운데 ~」
- [18] 서경덕, 「마음이 어린 후이니 ~」
- [19] 김영, 「연 심어 실을 뽑아 ~」
- [20] 작자 미상, 「마음이 지척이면 ~」
- [21] 작자 미상, 「가슴에 구멍을 동시렇게 뚫고 ~」
- [22] 작자 미상, 「앞 못에 든 고기들아 ~」
- [23] 신현조, 「벌의 줄 잡은 갓을 ~」
- [24] 정철, 「재 너머 성 권농 집에 ~」
- [25] 김수장, 「서방님 병들어 두고 ~」

<연시조>

- [26] 이신의, 「단가육장」
- [27] 김상용, 「훈계자손가」
- [28] 조준성, 「호아곡」
- [29] 나위소, 「강호구가」
- [30] 윤전도, 「어부사지사」

<약장 · 가사>

- [31] 정훈, 「우활가」
- [32] 채득기, 「봉산곡」
- [33] 정학유, 「농가월령가」
- [34] 작자 미상, 「우부가」 → 2506 연계
- [35] 백광홍, 「관서별곡」
- [36] 이이, 「낙지가」
- [37] 남도진, 「낙은별곡」
- [38] 이운영, 「순창가」
- [39] 작자 미상, 「갑민가(甲民歌)」
- [40] 정철, 「관동별곡」

<잡가 · 민요>

- [41] 작자 미상, 「시집살이 노래」
- [42] 작자 미상, 「제비가」
- [43] 작자 미상, 「발매는 소리」

국어 영역

<고대 가요 · 향가>

[01]

(가)

흐느끼며 바라보매
이슬 밝힌 달이
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
모래 가른 물가에
기랑의 모습이올지 수풀이여.
일오내 자갈 벌에서
낭이 지니시던
마음의 갓을 좃고 있노라.
아아, 잣나무 가지가 높아
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.

<김완진 해독>

{ (구름을) 열어 찢히니
나타난 달이
흰구름 좃아 떠가는 것이 아닌가?
새파란 냇물에
기파랑의 모습이 있어라
이로부터 그 맑은 냇물 속 조약돌에
기파랑이 지니시던
마음의 끝을 따르고자
아아, 잣나무 가지 높아
서리를 모르는 화만(花判)이여

<양주동 해독> }

- 충담사, 「찬기파랑가」 -